

농업에 기술을 더하다...나주 스마트팜 인재 육성

시, 이론·실습 결합 초급·고급과정 현장 맞춤교육 전기·양액 제어 기술 등 실질적 현장 대응력 강화

나주시가 스마트농업 확산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6년 스마트팜 현장 전문가 양성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스마트팜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해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상반기 초급 과정, 하반기 고급 과정으로 나눠 수준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 초급 과정은 17일까지 3일간 나

주시농업기술센터 디지털교육장(2층)에서 운영된다.

교육은 스마트팜을 처음 접하는 농업인부터 실제 사용자까지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우성스마트팜의 양창환 강사가 농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주요 교육 내용은 스마트팜 운영에 필수적인 전기 제어와 양액제어 기술로 전기의 기초 개념과 감전 사고 사례, 화

재 발생 원리 등 안전교육을 포함한 실질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전기 교육은 이론 중심으로 기초 개념과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양액 제어 분야는 실제 장비를 활용한 실습 위주로 진행돼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디지털농업교육장은 양액기를 활용해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 실증 재배 공간으로 교육생들이 실제 재배 환경 속에서 장비 구조와 작동 원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를 통해 양액 제어기 구조 이해와 고장 원인 분석, 응급조치 및 유지보수 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울러 센터에서는 스마트팜 기반 실증 재배 연구를 병행하고 있어, 교육과 연구가 연계된 현장형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행남열 나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스마트팜은 이론보다 현장에서의 운용 능력이 중요한 분야로,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초급부터 고급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지난해 진행한 '2025년 스마트팜 현장 전문가 양성 교육' 모습.

사진제공=나주시청



순천드라마촬영장이 최근 OTT 콘텐츠 촬영지로 주목받으며 영상업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시청

순천드라마촬영장, 영상콘텐츠 명소로 '자리매김'

영화·드라마·OTT 등 주요 플랫폼 촬영 잇따라

순천드라마촬영장이 최근 OTT 콘텐츠 촬영지로 주목받으며 영상업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드라마·영화 촬영 실적(13일 기준)이 이미 전년도 상반기 수치를 크게 넘어섰으며, 현재도 다양한 제작사들의 촬영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즈니플러스, tvN 등

주요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독립영화와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며 순천드라마촬영장의 콘텐츠 노출 효과를 높이고 있다. 촬영된 작품으로는 '꼭꼭 속았수다', '정년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미지의 서울' 등이 있으며, 방영 이후 작품들이 흥행하며 촬영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영화 1건, 드라마 3건의

촬영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도 촬영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영화 4건, 드라마 3건 등 총 7건의 촬영 문의가 접수돼 있어, 순천드라마촬영장이 시대극 영상 콘텐츠 제작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천드라마촬영장은 1960~1980년대 서울 변두리와 달동네, 옛 순천읍내를 재현한 국내 대표 야외 세트장으로, 다양한 시대극과 레트로 감성 콘텐츠 촬영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이러한 독특한

공간성과 높은 완성도로 꾸준히 제작진

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또 교복 체험과 골목길 포토존 등 레트로 감성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갖춰 관광객들에게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순천드라마촬영장은 콘텐츠 제작과 관광이 결합된 대표적인 복합 문화공간이다"며 "앞으로도 촬영 유치 확대와 함께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순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66pk@gwangnam.co.kr

영광 '반값 여행' 하루 만에 완판

가족·수도권 1800명 몰려...30억 소비 기대

영광군이 추진하는 '2026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영광 심포 여행'이 접수 하루 만에 마감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 신청이 이뤄진 지난 10일 1871명이 접수, 4월분 사업비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조기 마감됐다.

체육관광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누리집 접속자가 몰리며 일시적인 접속 지연이 발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신청자 분석 결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개인 여행객 21%, 팀 단위 20%, 청년층 1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349팀(38.3%)로 가장 많았으며 호남권 345팀(38%), 충청권 101팀(11.1%), 영남권 99팀(10.9%) 순으로

집계됐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 직접 지출 10억원과 관광객 소비액 20억원을 합쳐 총 30억원 규모의 관광 소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준으로는 약 48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억원의 소득유발효과, 24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기대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영광 심포 여행은 관광객에게는 부담을 낮춘 합리적인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가져오는 상생형 관광정책"이라며 "4월 신청을 놓친 관광객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5월 사전 신청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화순, 소중한 산림문화자산 '보호수' 정비

1억 투입...상반기 38개소 39주 대상

화순군은 소중한 산림 문화 자산인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6년 보호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45주의 보호수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보호수는 단순한 수목을 넘어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자연유산으로, 주민 생활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군은 보호수에 대한 일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령화로 수세가 약해졌거나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풍질·풍도 위험이 있는 수목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정했다.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반기 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한천면 한계리 등 38개소의 느티나무 등 39주다.

정비사업은 단순한 외형 관리에 그치지 않고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과 생명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부패 부위를 제거하고 동공부를 충전한 뒤 살균·살충 처리를 실시하는 한편, 나무의 균형 유지를 위한 수형 조절과 주변 정비도 함께 진행한다.

노후화된 안내판을 정비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두현 산림과장은 "보호수는 화순에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소중한 생태 자산"이라며 "상반기 내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보호수가 건강하게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영암, 농기계 집 앞 운송 서비스 시범 운영

고령·귀농·여성농업인 우선 지원

영암군은 농기계 운반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임대농기계 운송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화물차량이 없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턱전본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운송 대상은 농용굴삭기, 보행관리기, 승용예초기 등 자체 동력이 있는 기종 약 10종으로, 예약 후 사용일에 맞춰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고 반납 회수까지 지원한다. 운송료는 편도 1만원, 왕복 2만원이다.

특히 영암군은 고령농업인과 귀농·창업농업인, 여성농업인을 우선 지원해 농기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정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운송서비스 도입으로 농기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농업 기계화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해남, 어르신 목욕·이미용 지원사업 '호응'

바우처카드 도입...어르신 건강·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해남군이 추진중인 어르신 목욕과 이미용 바우처카드 지원사업이 이용자 증가와 함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80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에 대해 2022년 1월 목욕·이미용 할인권 지원을 시작, 2023년 7월부터는 연 4만2000원 상당의 카드형 바우처로 전환됐다.

바우처카드 도입 이후 이용 편의성과 정산 절차가 개선돼 가맹점 가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총 131개소(목욕업 5개소, 이미용업 126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6103명에서 2026년 4월 기준 687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 어르신들의 높은 만족도와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바우처카드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으로, 가맹점 가입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우처카드 발급 및 가맹점 가입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바우처카드는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장성 진원면 유채꽃 축제 18일 개최

다양한 체험행사 등 운영

장성군 진원면 유채꽃 축제가 오는 18일 산동리에서 열린다.

진원면이 주최하고 유채꽃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진원면의 관문인 산동리 일대 약 1.2km 구간에 가득 피어난 유채꽃밭에서 펼쳐진다.

수마 체험, 전차·장갑차 전시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운영될 예정이다. '캘리그래피', '미니 거울' 만들기, 만보

기 게임, 딸기 주물럭·딸기라메 만들기 체험 등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들도 기대를 모은다.

'유채꽃 체험부스'에서는 유채꽃다발 만들기, 유채화전 만들기, 유채꽃차 시음에 참여하며 봄의 향기를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다.

진원면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이 준비한 라인댄스, 통기타 연주, 농악 공연이 아우러진 개막식과 난타, 마술쇼, 풍선 아트, 품바, 지역가수 축하공연, 현장 노래방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된다.

장성=이항범 기자 ihb6699@gwangnam.co.kr